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발언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관련법 신속 추진 강조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겹쳐지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장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말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

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

축, 견제정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완화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한 김동연, "올해는 경기체육 정상화의 원년, 내년은 경기체육 도약의 해가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는 경기도체육 정상화의 해라 생각한다. 경기종합체육대회 대회를 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이양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위탁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경기도체육회로 옮겼다"며 "내년은 경기도체육 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경기도민 1,400만의 몸과 체력, 정신까지도 단련시켜 다 함께 건강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경기도선수촌 건립(타당성용역)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다"며 "우리 체육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보답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보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의회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잘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경기도가 한층 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염준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김민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정부시청) 등 95명을 시상했다.

김민선 선수는 2023 레이크플레이스드 동계유니버시아드 3관왕(500m, 1천m, 혼성계주),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관왕(500m, 1천m, 팀추월) 등을 달성했다.

남녀 최우수선수에는 지난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남자 4관왕에 오른 이재성 선수(한국체대)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수영 여자

평영 200m 은메달리스트 권세현 선수(안양시청)가 선정됐다. 지도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화성시청 펜싱 양달식 감독과 광명북고 배드민턴 김재훈 지도자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허준 펜싱 선수(광주시청) 등 메달리스트 15명을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42개를 포함해 메달 190개를 획득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은 금메달 9개를 포함해 메달 43개(선수 61명)를 획득했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체육 맞손토크',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 축하 소통 간담회' 등 체육계와 화합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스포츠 취약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고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상북도 노사민정,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마음 모아!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12월 19일 안동 CM파크 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고병현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규 위원으로 윤수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현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촉했으며,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성원과 기대를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노사민정의 실천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산업안전보건을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산업안전보건 실천협약에는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 ▲사업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장비 및 시설을 제공 ▲도민은 노동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이

향상되도록 지원 ▲행정기관은 규정준수를 독려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본회의에서 굳건해진 노사민정의 신뢰와 화합은 지역 성장과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의 바탕"이라며, "경상북도는 노동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 안전한 산업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여 다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 노사민정활성화지원사업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그동안 지역 노사민정의 발전과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의 우수한 사문화 형성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4 1월13일~14일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개최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겨울스포츠의 꽃'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가 2024년 1월13일~14일 이틀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묘기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월 13일 ~ 1월 14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1월 6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페스티벌 (1월 7일)

_ 장소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최 :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 대한산악연맹 주관 :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김대진 경북도의원, 2023년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의원 선정!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8일 대구 수성관광호 호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2023년 우수의원·우수기자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됐다.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의 체계적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했으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자문단 구성, 전국 광역 시·도의회 운영방식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정책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우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11월부터 수행한 2023년 도실국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 험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북도와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등을 촉구했고, 경북 북부권이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요구했으며, 도내 장기 반차민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공간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경상북도 투자유치촉진 및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김대진 의원은 "올 한해 지역구 도의원이자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집행부를 향한 감시와 견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글로벌대학 등 굵직한 지역 현안부터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농촌 고령화 대응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정책까지 우리 지역을 누구나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새해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활용 토대 마련

김대일 도의원,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 근대역사, 근대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7일이 문제를 진단하고자 '근현대문화유산의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고, 도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발견하고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했으며, ▲ 도시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일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하여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재운 의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16개 구·군별 맞춤형 공공디자인 혁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으로 지역소멸화와 함께 급증하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의 본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마을을 재설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연구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진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인 홍재분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김인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명예교수, 권중호 영도경찰서 경위,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및 공공도시디자인과, 건강정책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책연구용역에서는 부산의 16개 구·군의 자살·고독사 현안을 조사하고 타시도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부산시의 자살·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보고에 이어진 토론 및 질의시간에서 김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살·고독사는 상당히 개별적이므로 관련업 종사자 또는 가족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한 실증연구를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최종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주문했다. 또한 권중호 영도경찰서 경위는 "고독사에 대한 경찰의 통계자료가 없고, 부산시의 보건복지부의 통계 수치가 다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재성 호천마을 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조례 제·개정시,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부산시 관계 공무원인 김혁주 디자인정책팀장은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셉테드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중이다.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고, 정현정 복지나눔팀장은 "고독사는 매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견자를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면서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전진주 정신건강팀장은 "정부의 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자살 방지사업을 실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역피라미드 구조로서 구·군에서 근무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재운 대표의원은 "현장과 정책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여 보고서에 잘 녹여 내겠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재설계를 통한 자살·고독사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

다. 부산시 집행부에서는 사업 발굴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면서 마무리 했다.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친환경 도시 속에서 부산시민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후 세대에게 시민 행보를 물려주기 위해 도시디자인과 연계한 연구를 목적으로 김재운 의원(부산진3, 국민의힘)을 대표로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철중 의원(수영구1, 국민의힘),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김희태/기자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환영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번 결정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확장이 되어야 하지 축소의 대상이 되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온

만큼 서울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5일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되어 준비한 찬반토론이 무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다수당의 일방통행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남과 경기, 서울에서 시행하거나 정쟁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긴 호흡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비롯하여 의회 안팎의 연대와 소통에 힘쓰겠다"며 입장을 마무리 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광화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 중랑구, 구로구, 용산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19일 오전에는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광수/기자

화성시의회는 지난 18일, 모두누림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화성시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의회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희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많이 활성화됐다"라며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에 적극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4월부터 화성시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의 오문섭 대표의원은 "특례시 지정까지 남은 2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1분과(조직진단 및 기능 강화분과)는 장철규 분과장, 2분과(인사운영 및 독립분과)는 전성균 분과장, 3분과(신청사 준비 및 의회 아카이브 분과)는 명미정 분과장이 맡고 있다.

'정조대왕 역사 연구회'대표의원 유재호 의원은 "우리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관계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답사, 연구용역 중간점검을 통해 화성시민의 정조대왕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7개월을 바쁘게 달려왔다"라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정조대왕과 관련 콘텐츠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화성시민의 고

유성 확립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정책개발에 무한대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 축제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이혜남 의원은 "화성시 대표축제의 발전과 각종 크고 작은 축제들의 내실강화를 통해 축제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간담회, 벤치마킹, 강연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논의해 왔다."며 "앞으로 지역의 특색과 자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역사업 제도개선 연구회' 대표의

원 김상수 의원은 "우리 연구단체는 그동안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화성시 민간위탁 사업과 용역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화성형 용역사업 사업자 선정 및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제언과 화성시 향후 10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맞는 용역사업 보완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며 "결과보고회가 화성시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화성시에서는 용역사업의 제도개선과 감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KT WIZ, ENA와 함께하는 제12회 수원 사랑의 산타 행사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9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수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오래도록 함께하며 사랑받는 수원 사랑의 산타 되길..."

원 사랑의 산타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KT WIZ 프로야구단 및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KT WIZ 프로야구단 선수 사인회 ▲후원금 전달식 ▲감사패 전달식 ▲산타 선물전달 등이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수원 사랑의 산타 행사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

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올해도 행사를 주최해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리며, 오래도록 함께하며 사랑받는 수원 사랑의 산타가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수원 사랑의 산타행사를 통해 모금된 90,000천원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수원파인인그스 독립야구단에 전달됐다.

김병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오 께 나 입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3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2차 시행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문화와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2차'를 시행한다.

도와 재단은 위 공모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인식을 고취할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다가오는 제105주년 3.1절을 한층 풍성하게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기간 중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도내 예술인, 기획자,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역사 체험(재현) 행사, 교육, 탐방, 퍼포먼스, 전시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로,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장애학생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선택 기회' 확대 강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교육의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월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정책 측정 지표를 보면 경기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이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를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경기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어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정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시각장애 인구조사를 보유한 경기도에 정작 도내 단독 맹학교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맹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 주체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올해 7월에는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관련 국회토론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시각장애인

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복합화시설 수원 시청 협의 등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등의 요구를 최대한 정책에 담아내고자 했으며, 향후 장애인 교육정책 수립 시 비장애인의 시선에 머물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라건대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 신설을 필요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며, 대표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전문강사로 활용한 대면교육 및 장애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사무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더 투명해야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중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월~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



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하고 있고, 집행목적 또한 '정담회 지출'만 공개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지도 알 수 어려운 상황으로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

용 내역을 보면 집행목적은 '정담회 경비 지출'(안전행정,농정해양,도시환경,특별,교육행정위원회), '정담회비'(운영,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으로 사실상 모든 내역을 채우고 있고, 집행대상 또한 '업무관계자'(기획재정,경제노동,농정해양,보건복지,도시환경,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업무관계자'(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집행목적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집행대상 또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공개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의회 구성원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공인이고, 세금을 쓰는데 사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고, 정 그렇다면 기관명과 직급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는지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회의 업무가 도민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따라 현원 보육료 5% 이내 임대료 산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따라 현원 보육료 5% 이내 임대료 산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택과,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택어린이집 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임대료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맞게 현원 보육료의 5% 이내로 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계산해 임대료를 지

불하는 바람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이택수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개정을 통해 원아 정원이 아닌, 현원에 따라 산정해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공특위의 김안나 회장은 "경기도 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직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산정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양시 주택과에서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준칙개정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김달용 주택과



장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준칙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안내문을 일선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안내 공문을 시군에 보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지만, 고양특례시는 우선적으로 관내 공동주택별로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입주자대표 교육 등에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아동권리 증진을 비롯하여 아동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회 만들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아동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굿네이버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아동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

컨퍼런스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아동 건강권 보장"을 주제로 경기도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결과보고와 사례발표 및 4개의 정책제언과 토론, 정책전달 및 세레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킵보드 이용공간 마련 및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 청소년 시설 확대 및 학교 공간 주말 개방,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심 승차 구역' 표시, 학교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에 이르기까지 굿네이버스 각 지부의 의미 있는 정책제언들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생각된다"고 포문을 열면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하면서 아동의 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본 컨퍼런스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 본부장은 "경기도 내 389명의 아동과 131명의 멘토들이 속한 10개 지부에서 한 해 동안 아동권리침해 상황을 탐색하고 아동들이 직접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가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동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도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8일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이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인 수요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고, 구성 단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화 운영이 제도적 문제로 제기되어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자치경찰제 운영 제도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요구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치안수요가 전국 1, 2위로 치안수요에 따른 경찰 증원과 파견 인력의 6개월 단기 배치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지역성 강화 및 지역 주민의 치안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

한 재검토 및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고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펼쳐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광명시는 19일 철산역 일대에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활환경강사단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공공2부제 재시행 ▲미세먼지 저감 생활 수칙 ▲불법소각 금지 등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리플렛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캠페인 활동에 앞장섰다.

한 캠페인 참석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년부터 생활 속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시민의 건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안양 상인회와 함께 예산시장 벤치마킹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그램’참가... ‘상인들과 함께 해법 모색’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가 관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예산시장 벤치마킹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중앙시장 상인회·번영회·안영회·안양3동(당리당길) 상인회·중앙 지하상가상인회 및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관계 공무원 등 29명이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충남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현재 지역 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민원옴부즈만위원회 및 상인들은 예산군 경제과 및 예산시장 상인회로부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및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후 예산시장 내 장터마당, 상점 등을 방문해 안양 상권 재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

신우용/기자



수원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 공유회 개최

4개 거점 기관, 우수 프로그램 선정해 발표



수원시는 19일 수원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23년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공유회’를 열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4개 거점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사)수원YWCA(장안구),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권선구),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팔달구),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영통구) 등 4개 거점기관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수원YWCA ‘수리수리 평화마술사’ 참여 장애인들은 마술공연을 했고,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 청년의 성장드라마 ‘정글학교’를 상영했다.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수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샌드아트 공연 ‘각각의 정월’을 선보였고,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뮤지컬 수업에 참여한 성인발달장애들은 뮤지컬 ‘신데렐라’를 공연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학습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터링’ 게임,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는 ‘나랑함꼐’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작품도 전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질 높은 평생학습도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삶의 질을 높여겠다”며 “누구도 소

외되지 않는 ‘평생학습특례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는 권역별로 장애인 평생학습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전반에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기 위해 4개 지역 거점기관과 12개 유관기관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거점기관은 기관별로 특색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YWCA(장안구)-시민교육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권선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팔달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영통구)-장애인 평생교육문화 조성 등이다.

김범상/기자

화성국제테마파크 건립 본궤도 진입

정명근 화성시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화성국제테마파크 마스터 플랜 공개 및 테마파크 조성 본격화 논의



2023. 12. 19.(화) SHINSEGAE 신세계프라퍼티

해은 사업인만큼, 화성시를 넘어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조성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사업

년 초 시에 관광단지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시 관광 사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임 사장은 “진정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과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혁신적 미래 도시로 개발하고자 한다”며 “신세계계만의 도시 철학이 담긴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선보여 기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는 100만 화성시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

화성시에 건립 예정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임영록 (주)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19일 만나 화성시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세계 최고 수준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약 4조6,000억 원 규모로 화성시 송산면 일원 약 4.189km² 면적에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면담에서 화성시와 (주)신세계프라퍼티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MASTER PLAN ▲세계적 IP사유지 ▲단지 내 미래모빌리티 구현 ▲관광단지 인·허가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성국제테마파크 MASTER PLAN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내

성남시, '시장에게 바란다' 문자 소통으로 민원 95% 처리

신상진 시장, '업무용 휴대폰'을 '문자 수신 전용폰'으로 사용 결단하며 작년 9월 시행

성남시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하는 '바로문자 서비스'가 11월 기준 총 1만4985건이 접수됐고 이 중 95.1%(1만4246)가 처리 완료됐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바로문자 서비스는 현재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분야별로는 교통·도로·주차 분야의 민원과 정책제안이 4893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건축·주택·재개발 분야 2419건(16.1%), 환경·



부를 문자로 답변했다. 아직 미처리된 4.9%인 739건은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최종 검토가 끝나면 답변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민 문자 수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장 직통 바로문자 서비스가 시행됐다.

성남시는 최근 1년여간 운영한 시민 문자 수신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민원 처리 절차를 시민의 관점에서 한층 강화했다. 사업명 또한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에서 '바로문자 서비스'로 변경했다.

민원인 문자가 수신되면 민원 내용 입력 및 접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원인에게 접수 확인 문자를 보내고, 해당 민원 부서 지정 및 처리 기한을

지정해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한 민원 답변을 할 때는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정책 제언 등 상당한 처리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별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시는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2200명) 서비스 이용자의 60.8%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재이용하겠다'는 답변은 72.2%, '이용을 추천하겠다'는 답변은 68.4%로 나타났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휴대폰 문자로 민원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신속히 답변드리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마을번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번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번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번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번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째

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번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선과 화상, 현장 방문을 통해 700여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표창은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 예약 '로텍스 서비스'를 통해 매월 격주 목요일 정기적인 방문 및 화상 법률상담을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 등을 인정받

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방세현 시장은 “우리가 마을번호사 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내년 대규모 아파트 입주 인구 110만 넘을 듯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 12개 사업장 1만1487세대 달해...처인구만 9964세대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4년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109만명대에서 정체인 등록 인구가 내년엔 110만명대에 확실히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19일 밝혔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나던 시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09만명대에 들어온 뒤 4년 동안 110만명이란 벽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맴돌았으나 내년엔 그 벽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내년엔 시 전역 12개 사업장에서 일반분양 및 조합주택 아파트 1만1487세대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된다.

과거 용인에선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맞물려 시의 인구가 급증했던 만큼 내년엔 예정된 대규모 입주가 같은 현상을 재현할지 주목된다.

구별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처인구에서 9개 사업장의 9964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기흥구에선 1개 사업장의 999세대, 수지구에서는 2개 사업장의 524세대 입주가 대기 중이다.

시기별로는 1월에 처인구 고림동 보평2지구에서 1721세대의 입주가 시

작된다. 또 4월에 기흥구 마북동에서 9999세대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처인구 유림동에서 1963세대의 조합주택과 수지구 동천동의 94세대 규모 단지 입주가 각각 예정돼 있다.

8월엔 처인구 고림동에서 각각 1345세대와 1358세대 규모에 달하는 고진역 인근의 고림지구 D1, D2블록 입주가 예정돼 있다.

또 12월엔 처인구 모현을 왕산리의 왕산지구 B1, B3 블록에서 1043세대와 1370세대 입주가 시작되고, 양

아파트 준공 후 인구가 급증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1월 말 기준 용인특례시의 평균 세대원 수는 2.52명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2만8947명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관내에서 거주하다 이주하는 세대가 많다면 실제 인구 유입은 추정치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세대가 많다면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들 공동주택이 모두 1인 가구로 채워진다고 가정해도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내년 용인특례시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 선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외부 유입이 늘어난다면 신규 유입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용인특례시 인구는 지난 2020년 109만907명으로 109만 명대에 들어왔으며, 지난 11월 말 기준 인구는 109만4,549명이다.

김범상/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 운영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고양시 화훼산업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또는 박람회 및 축제 경험이 풍부한 자 ▲국가(지방공무원)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대학원 정(부)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7년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 경영 실적 및 경영 능력,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받는다.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 지원서,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재단 및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2월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후 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2인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이 선정한 1인을 이



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꽃박람회 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재단 전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새로 선임되는 대표이사는 내년 2월 임용 예정이다.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될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 서울예대와 협업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은 서울예술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전문 인력과 도서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예대 문예학

부 동문 장진영 작가가 강사로 나서 책의 의미를 발견하며, 능동적 독서수행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책과 대화하는 서평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예대 문예학부 동문 황인경 작사가가 강사로 나서 작사의 기초를 배우고, 가사를 분석하면서 재미와 음악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쉽고 재밌는 K-POP 작사 첫걸음'을 운영한다.

이 밖에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통해 세계관 속에 참여자들이 직접 들어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환경예술교육 '코딩명Z-꿈벌실종사건'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 서울예대와 협업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은 서울예술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전문 인력과 도서관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예대 문예학

부 동문 장진영 작가가 강사로 나서 책의 의미를 발견하며, 능동적 독서수행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책과 대화하는 서평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예대 문예학부 동문 황인경 작사가가 강사로 나서 작사의 기초를 배우고, 가사를 분석하면서 재미와 음악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쉽고 재밌는 K-POP 작사 첫걸음'을 운영한다.

이 밖에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통해 세계관 속에 참여자들이 직접 들어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환경예술교육 '코딩명Z-꿈벌실종사건'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이천 지역의 신상품을 라이브커머스로 직접 만나다!

크리스마스 특집 이천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방송일시: 2023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방송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 (https://naver.me/5yBwXJyJ)

방송문의: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031-633-6271 (주)프로무브 010-6313-6661

이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이천의 신상품 4가지를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선보인다 밝혔다.

오는 21일, 이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은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천시의 우수 농산품을 활용한 신상품을 최근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1시간 동안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천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여 이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 1년 여간 개발하고 생산한 신상품으로 총 4가지 상품을 엄선하여 최대 43% 할인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종 레드토마토를 활용한 건강 증진 상품인 '오건토마토'의 건강한 토마토를 활용한 즙, 잼 상품과, 3대

에 걸친 전통 수제방식을 고집하며 국내산 원재료만 활용한 건강 간식 '이천 쌀강정'의 전통 수제 현미 강정 바를 판매 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동시에 소비자들과 소통과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홍보 방식으로 전문 쇼스트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상품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매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이천 지역의 다양한 특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 경제와 농산물 생산자들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천의 특산물을 더욱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과 소비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 일정과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 2023년 12월 21일 오전 10시~11시

방송 플랫폼 : NAVER 쇼핑라이브

소비자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확인 하고, 이천시의 우수한 농산물로 만들어진 신상품을 최대 4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천시의 특산물과 농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G6100번 광역버스 출근길 현장 확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18일 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잘실행 광역버스 G6100번 노선의 고산지구 정류소 탑승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18일부터 민락.고산지구 G6000번.G6100번 정규버스를 각각 2대씩 증차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광역교통이 취약한 고산지구의 출근길 탑승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이번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정음마을 고산 2단지 정류소에서 민락.고산지구 광역버스 증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후 G6100번 버스를 타고 고산수자인아파트 정류소까지 이동해 승차 상황을 점검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정류장마다 출근에 나선 시민들의 탑승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다. 다행히 이번 증차로 출근 혼잡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10분 가량 줄어 탑승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김동근 시장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특히 버스 대기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광역버스를 증차 운행해 다행"이라며, "퇴근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불편사항은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1월에도 G6100번 광역버스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정규버스 추가 투입



으로 G6000번은 11대에서 13대, G6100번은 7대에서 9대로 늘었다. 이로써 배차간격이 최대 10분 줄어

최만식/기자

“대왕님표 여주쌀 米·식미 감정콩쿠르 국제대회 특별우수상 수상자 원광연 농가를 만나다”

여주한돈가축분뇨발효액비 일본에서도 통하다

여주시 대표 브랜드 “대왕님표 여주쌀”이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본 니가타현 진남정에서 열린 “제25회 米·미 감정콩쿠르 국제대회”에서 국제부분 특별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여주시는 총 5점의 시료를 출품했고, 그중 원광연 농가의 시료가 본선에 진출하여 3차 심사위원 식미 평가(일본 쌀맛 감정 평가 협회)를 거쳐 최종 수상하게 됐다.

원광연씨는 현재 여주시 북내면 일대에 약8,000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농촌지도자회원 소속으로 영농뿐만 아니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여주시 북내면 농촌지도자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국제대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낸 원광연씨는 4년전 논의 배수로 높이를 맞추기 위해 객토를 하고 토양 개량을 했으며 우분과 적정량의 가축

지의 양분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광연씨는 “쌀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여주쌀의 고품질화와 밥맛을 위해 적정 시비와 토양관리를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여주쌀의 품질 유지를 위해 여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김영신 작물연구팀장은 “토양내 유기물 관리와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소를 통해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춘 것이 이번 국제대회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영농 교육시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여주쌀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100 화성특례시로 나아가는 백만화성

‘목포항구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쾌거

대한민국 유일 항구축제로서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 인정 받아



목포항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개최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광객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된 후부터는 2020~2023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왔다.

목포항구축제는 국내 유일 항구축제로서 전통파시 콘텐트의 차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25개 지정 축제에 신규로 입성하는 영예를 얻었다.

목포항구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데 이어 2019년 유망축제가 지정제로 개편된 후부터는 2020~2023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왔다.

시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우수축제, 조직운영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의 우수성을 확인 받고 지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목포항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 지원받게 된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통해 풍요로운 목포항을 재현하고 '청년이 찾는 글로벌 파시 항구'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항구 문화의 특색과 청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축제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목포항구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 목포항구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남도 민선8기 공약, 정상 추진 87%

도민평가단 정기회서 도정 우수사업 공유·공약 이행상황 점검

전라남도의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100개 실천 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87%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19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도민평가단 정기회'를 열어 도정 우수사업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도민평가단은 매년 반기별 1회씩 정기회를 열고 민선 8기 도민과 약속한 100대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함께 도정 전반에 걸쳐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도정 주요사업 평가결과 보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안 보고 및 논의·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도정 주요사업 평가는 각 실·국에서



제출한 62개 주요 사업 중 도민평가단의 7개 분과에서 선정한 28개 사업(분과별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평가단이 현장평가를 거쳐 9개의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은 8개 분야, 20개 전략과제, 100개 실천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완

료 10개, 시기 미도래 1개, 정상 추진 77개, 일부 추진 12개로 정상 추진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적 정책 여건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약사항 변경이 불가피한 12건에 대해 도민평가단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실천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송경환 평가단장은 "공약 및 도정 현안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평가단이 성공적 도정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제1기 도민평가단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7개 분과위원회, 9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 2년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은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도민의 대표로 많은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200만 도민의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평가단의 정책제언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재경구례군향우회, 고향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부금 기탁



연말을 맞아 재경구례군향우회의 두 인사가 12월 16일 고향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구례군에 기탁하며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기부에 참여한 인사는 재경구례군향우회 이영수 운영위원장과 (주)참스디자인 신영환 대표이사로서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운영위원장과 신 대표는 구례를 출신으로 재단법인 구례장학회 이사직을 맡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며 고향 후배들을 위한 선행을 실천해 왔다.

이 운영위원장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과 구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신 대표의 이웃돕기 성금은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회(구례희망나눔가게) 운영 지원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두 기부자는 "구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금을 통해 내 고향 구례를 지키고 어려움을 겪는 주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향우들의 따뜻한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 구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순천시,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개시

20일부터 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 소아 경증환자 신속 의료서비스

순천시는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오는 2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은 당번제로 진료하는 연합방식

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진료 시간은 현대여성아동병원 화·수·목·금요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이며, 미즈여성아동병원 월요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지난달 3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후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순천소방서·달빛어린이병원 관계자와 수시로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가상 시뮬

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했다.

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자녀가 아프면 소아과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아 의료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전남 제1호! 순천시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소아 경증환자 긴급 야간 휴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운영부서 | 현대여성아동병원 / 미즈여성아동병원
운영기간 | 2023년 12월 20일부터
이동대상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위한 환자

진료시간 및 운영시간
현대여성아동병원 | 화·수·목·금요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미즈여성아동병원 | 월요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처
순천시 보건소 | 199-4682
현대여성아동병원 | 920-1105
미즈여성아동병원 | 720-8560, 8070

보성군, 보성군 자원봉사센터 '보성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보성을 밝히는 빛, 우리는 자원봉사자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보성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3년 보성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자원봉사자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1년간 활동을 공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400여 명의 보성군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으며 '보성을 밝히는 빛, 우리는 자원봉사자'라는 주제로 식전 행사,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시상, 기념사, 축사, 대회 주요 행위(퍼포먼스), 작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 해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을 펼친 3개의 자원봉사단체, 12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보성군수 표창을 수여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받은 김 모 봉사자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스스로를 칭찬해 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달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을 밝히는 빛!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보성의 오늘이, 보성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며 "오늘 하루만큼 봉사자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원영/기자

“배움은 사랑입니다” 올해 나주 사랑 평생학습 어떠셨나요?

나주시, 전남 최초 평생학습 바우처 참여자 후기 이벤트 19일까지 공모

나주 사랑배움바우처 이벤트 학습후기

맛글로 생생한 학습후기를 써준 나주시민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려요!

미니어형기방 | 여행파우치세트 | 아메리카노 (30명)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12월 29일(금)까지
대상 | 23년 나주 사랑배움바우처 학습자 중 학습후기 작성자
조건 | 글자수 200자 이상 작성
방법 | 평생학습포털 게시판 바로가기

문의 | 나주시 교육지원과 063-339-4695

전라남도 나주시 올해 첫 시행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인 '나주 사랑배움바우처' 참여자 설문조사 및 학습 후기 이벤트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습 후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평생학습 홍보 기념품이 제공된다.

나주 사랑배움바우처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문화생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내 지자체 중 평생학습과 관련된 자체 바우처 사업은 나주시가 최초다. 시는 시행 첫해를 맞아 올해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현금 포인트(바우처) 카드를 발급 지원했다.

학습 후기 이벤트는 새롭게 시행된 나주 사랑배움바우처 사업 성과 분석과 내년도 사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습

참여자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자는 올해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학습자로 설문조사는 시청 누리집에서, 학습후기는 나주시평생학습정보방 누리집에서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며 겪은 일상의 변화, 자기 계발, 소감 등을 자유롭게 200자 이상으로 작성하면 된다.

현재 배움바우처 사용·등록 기관은 총 146곳으로 운동, 미술, 음악, 공예, 요리 등 학습자 개인의 취향과 특기에 맞춘 광범위한 평생학습 과목이 운영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학습자 개개인의 참여 소감 공유를 통해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배움의 즐거움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내년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시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창업 교육 수료식 개최

남원시, 전통주·음료, 크리에이터 & 상품기획자(MD) 창업 교육으로 16명 신규 창업인 배출!



남원시는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통주·음료', '크리에이터 & 상품기획자(MD)' 창업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수료생 중 16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

며 지난 15일 수료식과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수료증 및 표창장 전달과 함께 교육을 수료했던 김상진 전주대 산학협력단장과

정희석 우석대 산학협력단장 표창장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교육은 엠제트(MZ) 세대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전통주와 음료 창업, 유통전문가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소품 상품기획자(MD) 양성 2개 과정으로 운영했으며, 2월부터 12월 초까지 이론과 실습, 현장실습, 1:1 창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 시 필요한 경영 기술과 본인의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교육이었다.

남원시는 지난 3년간 '김부각'과 '가정간편식', '밀키트', '드론' 창업 교육을 통해 45명의 창업인을 배출해냈으며, 올해에도 2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16명이 창업하는 기쁨을 토해내며 목표를

이루었다.

최경식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지역 내에서 창업 교육이 진행되고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첫 걸음으로 벌써 반절을 이루었으니 꾸준한 끈기와 인내로 사업에 성공하여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참여 수료생은 "이번 교육은 창업을 위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내용들이라며 기회를 주신 남원시와 전주대,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너무 감사드리고, 매 수업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해 배운 것을 토대로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화순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선제적 자연 재난 대응으로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연 재난 대책추진 평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실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훈련 성과 등의 대응추진 실적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화순군은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비상근무 심우반을 개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했으며, 선제적 상황관리로 국지성·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동복댐 만수위 도달에 따른 인근 9개 마을과 지식천 범람 위험 1개 마을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등, 집중호우 태풍을 대비해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금강사지와 같은 재해위험지역을 긴급 예찰과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5월부터 10월 폭염 대책 기간에는 무더위 쉼터를 일제 점검하고 그늘막 설치, 살수차 동원, 대형열음 비치 등 폭염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방송과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하며 적극적인 사전 대비로 전남도 내 유일하게 온열질환자 미발생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Zero)'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겨울철 자연 재난도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통해 군민이 안전한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강진군도서관, '한밤중 도서관에서 동아리 밤' 행사 열어

18개 동아리 200여 명 참여, 소통과 화합 다져



강진군도서관이 연말을 맞이해, 동아리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동아리밤 행사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강진군도서관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이번 '2023년 한밤중 도서관에서 동아리 밤'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100여 명이 함께했다.

현재 강진군도서관에는 18개 동아리 200여 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책을 비롯한 인형, 수채화, 프랑스 자수, 영어,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자기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동아리 밤 행사는 AI가 소개하는 동아리를 시작으로 우수동아리 시상, 강바시(강진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 색소폰 연주, 나의 동아리 5분 스피치, 인형극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 동아리에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윤색지', 어린이와 청소년 책을 연구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 강진지회'가 선정되어 '책 많이 읽는 지역 만들기' 관련 감사장을 받았다.

선정된 재능기부자 및 동아리 우수 회원에게는 2024년부터 1년 동안 도서 대출 권수 15권, 도서특강 등이 우선 지원된다.

이밖에 다목적 강당으로 이어진 통로 곳곳에는 수채화 동아리 회원들의 어반스케치 작품 50여 점과 캘리그래피 그리고 실실자수 및 실과바늘 회원

들의 프랑스 자수 작품들이 전시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임정자 동화작가의 강바시(강진을 바꾸는 시간 15분) 시간에는 '자기개발-아름다운 욕망'을 주제로 AI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변화와 생성형 AI 기반사회, 창작활동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작게, 느리게, 꾸준히 자기개발을 강조했다.

수채화 동아리 회원은 '갈색 추억', '그 겨울의 찻집' 등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면 분위기를 띄웠고, 독서토론 동아리 별밤 회원 모두가 나선 인형극에서는 그림동화책 '방귀쟁이 며느리'를 그림자극으로 선보여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동아리 밤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도서관 동아리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다양한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소규모 동아리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운호/기자



전북도,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단지성 모은다

각계 전문가 참여한 제2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개최

전북도가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구상을 위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열어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라북도도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의회, 신지식장학회, JB미래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함께 그리는 새만금'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Jeonbuk Saemangeum Innovation Symposium)'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세레머니, 발제·토론 등으로 구성하고, 각계 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이차전지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JB미래포럼, 신지식장학회, 군산·김제·부안 등 시군 부단체장 및 의회 의원, 이차전지 기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북은 특별한 미래를 향한 새만금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이끌어



야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새만금을 위한 정책을 함께 그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정운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이어서 '새만금의 희망'을 담은 샌드아트와 '새만금의 희망' 그림 퍼포먼스, 심포지엄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비전을 들어 '새로운 전북, 특별한 미래' 향에 나아가는 새만금을 염원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기 새만금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 함께 그리는 새만금'

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통해 "장기화된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외 첨단산업 클러스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및 지역혁신역량 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교통 SOC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좌장으로 남궁 문 원광대 교수가 '새만금 광역 교통인프라 적시공급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남궁 문 교수는 민간투자 본격화, 기업유치 조건, 새만금 거주민 생활여건 조성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 고현정 군산대 교수, 이정재 전북도보도개발원, 이규형 CBS 보도제작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 생활교통 해결 마련 등 주변도시와 연결성 강화 국제 물류 운송 체계 마련, 입주인 생활교통체계 마련 등 새만금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을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2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육성방안'으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좌장을, 선양국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선양국 교수는 우선 중점 추진 과제로 중앙의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초격차 기술 개발,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리사이클링 및 광물 가공 분야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 김형덕 (주)성일하이텍 이사 등이 함께 열린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폐수처리장 신설 및 확대, 입주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출/기자

진도군 아이사랑위원회 산타원정대, 취약계층 지역아동에 성탄절 선물 깜짝 전달

산타로 변신한 기관 단체장들, 지역아동 직접 방문...성탄절 선물 전달



진도군이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진도아이사랑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타원정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도군, 진도군의회, 전남도의원, 진도경찰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민주평통협의회, 진도사랑 아이사랑 추진위원회,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9개 기관 단체장이 함께 참여해 뜻을 모았다.

행사는 후원금과 지원금 전달식, 산타선물 포장,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으며 산타복을 입은 각 기관 단체장들

이 아동의 집을 직접 방문해 옷과 간식 등 성탄절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사랑 위원들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성탄절 선물을 마련했다"며 "진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아동들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미리 조사해 준비한 만큼, 선물을 받은 아동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후원자들과 함께 아동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아이사랑위원회는 전남 최초로 지난 8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내 아동복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영진/기자

최대 한파에도 신안군 야외(노지) 겨울꽃 축제 성공

한파 속에 피어난 아기동백꽃, 방문객들을 매료시킨다

신안군은 2024년 1월 1일까지 1004점 분재정원에서 펼쳐지는 섬겨울꽃 축제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도 지난 주말(12월 16일~17일)이틀간 압해도가 매력적인 겨울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으로 생각한다"라며, "겨울꽃 축제장에 아기동백꽃과 같은 빨간색 의상을 맞춰 입고 방문해 준 관람객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 '압해도'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며 한파 속에서도 소원지 쓰기, 느린업서 쓰기 등의 축제 프로그램과 주말 보물찾기, 행운의 방문객 등의 기획행사 참여를 통해 따뜻한 겨울 추억을 만들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의 열정은 압해도가 매력적인 겨울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으로 생각한다"라며, "겨울꽃 축제장에 아기동백꽃과 같은 빨간색 의상을 맞춰 입고 방문해 준 관람객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 '압해도'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섬진흥원과 함께 선정한 '대한민국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흑산도와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겨울철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아 남은 축제 기간의 성과도 기대된다.

김영진/기자

장흥군, 2023년 농민연대 대동 한마당 행사 개최



하고 농업인이 하나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군정유공자 10명에게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장흥군 농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하고 농업인이 하나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군정유공자 10명에게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대동한마당은 농민연대 농촌지도자회장을 비롯한 농업, 축산, 농촌 9개 소속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조석훈 장흥부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및 각 지역 농업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어울림한마당을 시작으로 마당놀이, 행운권 추첨과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쌀(10kg)100포를 기부하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장흥군농민연대 김선곤 대표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러농업단체와 유대하여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는 "쌀값 하락과 기후변화 등 농업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전환해 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투자유치 대상 기업 SK스페셜티(주) 수상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올 한해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시군 관계자, 유공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은 총 7개 기업이다.

대상에 SK스페셜티(주)(영주), 우수상은 대영전기(주)(경산), (주)보백씨엔에스(구미), 예코프로이노베이션(포항), 특별상에는 (주)동천수(상주), 동원테크놀로지(주)(김천), (주)태동테크(김천)가 수상했다.

이날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SK스페셜티(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사용하는 특수가스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올해 7월 경북도, 영주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신소재 제조공장 신·증설을 위한 5,000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NF3, WF6 등) 생산량과 시장점유율 부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주 가흥일반산업단지 및 SK스페셜티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에 따라 다수

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와 지역 재정 확대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영전기(주)는 경상에 소재지가 있는 내연 기관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업체로 출발하여 2016년부터 자동차 전장용 부품(LED조명) 분야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향후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전기자동차 모터코어 분야까지 진출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경산시 4일반산업단지에 89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고 2025년 말까지 400억원의 추가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다.

(주)보백씨엔에스는 올해 경북도, 구미시와 이차전지용 절연체 제품개발 및 양산에 관한 1,000억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구미공장 증설 및 설비에 30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누전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배터리 보호용 절연체 및 셀(CELL)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이다.

(주)예코프로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2023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



산업 핵심 기술개발인 수산화리튬 제조 기술 및 폐전극 소재를 이용한 리튬과 유기금속의 분리 회수 방법에 특허를 보유한 포항 기업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원료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20년 730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투자를 완료했고, 향후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약 3,8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별상을 수상한 (주)동천수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그룹의 계열사로 기존

의 생수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생수 사업으로 시작해 탄산수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2021년 사업확장을 위해 상주시와 52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10월 동천수 상주캠퍼스 제3공장을 완공해 상주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함께 성장했다.

동원테크놀로지(주)는 자동차용 공조부품을 생산해 한온시스템 및 보쉬전장과 케이비오토에 부품 공급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현대모비스에

자동차용 헤드램프 부품을 생산해 납품 중인 내실 있는 기업이다.

2019년 김천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30억원을 투자해 김천공장을 증설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44명의 신규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태동테크는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 내장 부품에 사용되는 패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김천시와 158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김천공장을 증설하여 착실히 투자를 진행 중이다.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한 패널용 소재 필름을 신규 사업화하여 완공된 김천공장에서 필름과 이를 활용한 사출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나노코팅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군 부문 대상은 한 해 동안 총 8조 9,000억원의 투자 실적을 끌어내고 특히 CNGR, 화유코발트, 포스코퓨처엠, 예코프로 등 이차전지 분야의 대표 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대규모 신규 투자 진행중에 기

업으로 사함을 적극 해결한 포항시와 영천시, 의성군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구미시, 고령군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영주시, 예천군이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 대상은 포항시와 구미시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러-우 전쟁, 고물가 시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올 한해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안동(바이오생명), 경주(SMR), 울진(원자력수소)이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이 경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청년과 대화의 날' 개최

청송의 미래, 청년들에게 듣는다!



청송군은 지난 12월 19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청년들과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청송의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청년과 대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환경구축, 청년 유입과 창업, 청년참여기회 확대 등 지역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명이 넘는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인 일자리, 주거, 결혼, 육아 등과 관

련해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고민거리를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며 정책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장애·비장애 협업 예술공간 '창작공간 두구(Artspace DUGU)' 개소

스포원파크(금정구 소재)의 유휴시설이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이 포용예술을 실현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는 내일(21일) 오후 2시 스포원파크에서 '창작공간 두구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부산시 문화체육관광을 비롯해 부산시 관계자, 입주작가 및 문화예술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작공간 두구'는 부산시설공단 스포원파크 본관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조성한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기반 창작공간이자, 예술의 힘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예술인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포용예술'의 공간이다.

'모든 예술의 문을 열다. 함께 빛나다'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문을 열어' 누구나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성과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창작의 세계를 만들어 '함께 빛나는' 형상을 뜻한다.

포용예술의 거점을 목표로 ▲모든

예술가의 경험과 시각 존중을 통한 예술의 다양성 극대화 ▲공간 내 무단차, 휠체어 동선 중심, 장애인화장실 등 무장애 시설 조성을 통한 접근성 강화 ▲차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제시 ▲창작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상호 간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곳은 연면적 704.46제곱미터(m²) 규모로, 작가 창작공간 8실, 다용도실, 라운지,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존 창작공간과 달리 장애 작가,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예술인 창작 환경으로 조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석면해체 및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전기·소방·통신·냉난방기 설치,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사 등 총 4억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휠체어가 창작공간 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 및 너비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화장실 설치 ▲공간 내외부 동선상 수직이동 발생 최소화 ▲비상시 대피 상황을 고려한 양방향 출입구 확보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포용예술을 아우르는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개최된다.

▲올해 5월부터 진행한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과정을 중심으로 창작의 다양성과 예술의 포용성을 선보이는 입주작가 8인의 '작품 전시'와 ▲작가의 창작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포용예술 성공사례 및 실무경험을 공유하는 내외부 전문가 초청 '워크숍' ▲부산시 창작공간 홍티아트센터의 1기 입주작가인 송문주 작가를 초대해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은지(시각예술), 신수향(평면, 설치미술), 신현채(서양화) 등 입주작가 총 8인은 지난 9월부터 '창작공간 두구'에 입주해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

연계행사로 장애·비장애 협업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시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운영



업프로젝트 '오픈코드_B'에 참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창작공간 두구'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는 포용적 예술인 창작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라며,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시민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 (재)부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창작공간 두구' 입주작가 모집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의성군,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대상' 수상

의성군은 지난 19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3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체결 및 일자리 창출 실적과 투자유치 특수시책 발굴·시행 등을 평가하여 지난 1년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2023년 평가에서 의성군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기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총사업비 422억원을 전액 군비로 투자하여 의성바이오펀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90억원을 투입하여 세포배양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성장산업 동력인 세포배양산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연관산업의 육성에 매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의성군은 관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74.6억원)을 비롯하여 △의성위라벨복합문화센터건립(100억원) △세포배양 지원센터 GMP구축(94억원) △단일농공단지 기숙사 건립(42억원)을 추

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통한 시설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취약지역 공전전환 지원사업 △시군 연구산업 육성사업 △세포배양 인재양성 혁신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경로와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며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 의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2023년도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간담회 실시

연중 출하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다!!



영양군은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특산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읍면별 출하자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매년 출하자 교육 및 선진견학, 직원 친절 교육 등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출하 품목에 대한 대 주민 홍보 및 제휴 푸드 연계

판매 등 영양군 농특산물의 판로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직매장 운영부서인 유통지원과 농산물마케팅팀에서 주관

하여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및 온라인 쇼핑을 '은심마켓' 출하 농가 130명을 대상으로 연중 출하 계획서를 작성하고,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 출하자는 "연중 출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영양군에 감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하자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

또한, 고령·중소농·여성농의 직거래 상생 장터인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로컬푸드 연중 소비를 요구하는 품목들에 대한 기획 생산체계 구축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출하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통해 중소농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의 활기찬 앞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년 축산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다양한 시책과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산업무 종합평가는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집행실적, 공모사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 6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예천군은 차별화된 축산분야 자체 사업과 다양한 특수 시책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2021년 축산업무 종합평가 우수상을 시작으로 2022년 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축산행정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대내외적으



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축산인들과 관계자분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주민과 축산농

가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산림 꿈나무 '포플라장학생' 22명 선발

1978년부터 고등학생·대학생 1,443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상북도는 19일 도내 임업인 자녀와 산림 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포플라장학생 22명을 선발해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플라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포플라 장학금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산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내 임업인 및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와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 중 시장·군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1,443명에게 56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금 재원은 1967년 산림사업 현지 시찰 중에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 국토녹화 취지를 살리



고자 칠곡군 북삼읍 낙동강변에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식재하고 1977년

이후, 순환 수령장 운영 수익금, 도유림 입목 매각 대금, 도 출연금, 기탁금 등을 추가하여 16억원을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고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경북 포플라 장학 관련 기록"은 역사 문화적 가치와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국가 산림문화자산(제2020-007호)에 지정됐다.

지난 11월에는 "경북 포플라장학금 운영"자료가 산림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자료에 포함되는 등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플라 장학생 선발을 통해 산림 분야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의미가 크다"면서, "도민 모두가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왕피천마켓 숨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Merry Christmas-숨, 풍차 & 씨푸드 바비큐 파티 열다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오는 12월 23일, 24일 이틀간 왕피천공원 건강먹거리마당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왕피천마켓 숨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활력플러스사업 18개 액션그룹 주도로 풍차 바비큐와 씨푸드 바비큐 그리고 겨울맞이 신메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만든 먹거리를 선보인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의 주요 행사인 바비큐 파티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하여 음식 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손봉복 울진군수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관광자원 등의 발굴에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울진마켓-숨이 이번 행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2023년 메디컬ICT융합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12.20. 17:00,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늘(20일) 오후 5시 롯데호텔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2023년 메디컬ICT융합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메디컬ICT융합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이래 산·학·연·병 협업을 통한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 분야 기획과제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의료수학 생태계 조성사업 등 지역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일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2023 메디컬 재팬 도쿄(MEDICAL JAPAN 2023, TOKYO)'에 지역관을 운영해 지역기업 8개사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산·학·연·병 간 아이디어 공유와 기술·데이터 교류를 위한 메디스토밍 연구회를 3차례 개최하기도 하는 등

지역 의료·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 지원을 다방면으로 추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메디컬ICT 융합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병 협력관계를 증진해 지역 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주요 대학 ▲의료·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의료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2023년 메디컬ICT융합센터 지원사업 성과발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산업 발전 유공자는 총 3명(부산광역시 표창 2명, 부산경제진흥원 표창 1명)으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양재욱 교수 ▲(주)에이치이노텍 권유홍 대표가 시장 표창을, ▲(주)오투랩 이수경 대표가 부산경제

진흥원장 표창을 받는다.

초청강연으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가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카카오의 관점으로' 강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태영 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산업 지원사업 소개'를 한다.

사례발표로는 ▲(주)오투랩 이수경 대표가 '메디컬ICT융합센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부산대학교병원 김상수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경덕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산업·의료계 전문가들과 의료산업 육성·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미래신성장 산업인 의료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역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경주문화관광 해설 품격 높인다... 문화관광해설사 친절교육 실시

3명 강사 초빙해 서비스 친절, 경주읍성 심화교육 등 진행



경주시가 관광 만족도 증대와 해설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문화관광해설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광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사 간 소통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우수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정자 동국대 교수, 이현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장기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등을 강사로 초빙해 서비스 친절, 경주읍성 심화교육, 월지와 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올 하반기 펼쳐진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서비스 친절교육을 통해 이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였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해설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리지역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출범한 이래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경주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첨성대, 불국사, 양동마을 등 18개소에 상시 배치 돼 있다.

특히 야간관광명소로 유명한 동궁과 월지 및 첨성대는 야간에도 해설을 들을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은 공유일 관계없이 제공되며 사전적 해설 장소와 해설시간 등 자세한 사항과 사전예약은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타용/기자

전국 두 번째, '대구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수성알파시티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선정돼 추진됐다.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지원센터 2층에 블록체인 산업혁신을 주도할 기업 입주공간과 테스트베드, 체험공간, 협업공간, 회의실 등의 다양한 지원 시

설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블록체인 기업 입주 모집을 통해 8개 기업 선정을 완료해 12월 중에 입주 예정이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역외 기업 유치와 블록체인 융합서비스 실증, 기업 성장 지원, 민관 협업 네트워킹 활성화, 수요공급기업 연결 등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블

록체인 기업 100개사 조성으로 블록체인 산업 벨류체인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성알파시티는 제2의 판교밸리를 꿈꾸는 비수도권 최대 ICT/SW 집적단지인 대구광역시 디지털 인프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능을 한곳에 집적한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어 상호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합서비스 발굴 등 지역 혁신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안동시장,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 접견, 우호교류 증진 기대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 대표단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안동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체결한 '안동시 ↔ 시안시 인문·문화·관광 분야 MOU'에 관한 실질적인 교류사업과 우호 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동을 찾은 시안시 대표단은 시안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리샤오옌을 비롯한 물문국 부국장, 시안찬바생태구관리위원회 부주임, 교육국 및 외사판공실 처장 등이다.

시안시는 산시성의 성도로 면적 10,108km² 인구 1,316만 명이며, 중국 일대일로 거점도시, 병마용 등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관광도시이자 세계역사도시이다.

2022년 안동에서 개최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에 참석하고, 2023년에는 시안시에서 개최한 유라시아경제포럼에 안동시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상호 주요 포럼 및 국제행사 방문으로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시의 문화와 축제 및 국제포럼 등을 소개하고 △문화유산 관리 사례 공유와 상호 학술대회 및 포럼 참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시안 성벽 신춘 등불축제 상호 참가 및 도시홍보 △2024년 인문가치포럼 초청 및 세계인문도시 네트워크 창립에 대한 시안시의 참여와 지지 등 인문·문화·관광분야의 교류사업과 교류방안 및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시안시 대표단은 시립민속박물관과 월영교 야경을 관람하고, 다음 날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세계문화유산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탐방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중국 시안시의 이번 방문으로 양도시 간 문화, 관광, 인문, 청소년, 체육,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의 실질적인 우호 교류사업 추진으로 양측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안시 대표단을

환영하며 "안동시와 시안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끈끈한 우호교류를 지속해 왔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상상·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연극 '학교스타그램' 공연 펼쳐

학교폭력 zero, 학교폭력없는 교실을 위해

봉화군은 지난 19일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관내 중학교 4개교 16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체험형 연극 '학교스타그램' 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학생 간의 유대감이 줄어들고 따돌림·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극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연극 '학교스타그램'은 SNS 발달로 다양해진 학교폭력 사례를 청소년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며 유쾌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연극 관람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관람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아닌 연극



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봉화군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점촌 상여소리보존회, 한국민속예술제 경상북도 대표로 선정



문경시 점촌상여소리보존회는 지난 12월 16일 15시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 출전팀 선발을 위한 예심공연을 통하여 경상북도 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심사는 예심 출전팀들이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그 중, 점촌 상여소리보존회가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전통예술 보존성, 소리와 기획의 다양성 등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대표로 선발됐으며 2024년 10월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에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한민국 민속문화 발굴의 산실인 한국민속예술제는 수많은 무형문화를 발굴했으며, 문경시는 모전들소

리, 부곡리별신굿, 가은기세배팀이 출전한 바 있다. 특히 모전들소리는 2017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점촌상여소리는 안후준(남,70세), 금명호(남,43세)의 선소리꾼을 중심으로 '하직소리', '삼신풀이', '다리건너기', '논두렁건너기', '달구소리' 등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전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경지역의 대표 무형문화이다.

김제수 보존회장은 "우리 문경의 전통장례 모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며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내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아쉬운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2023년 경상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송군은 최근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2021년 우수, 2022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3년에도 우수기관으로 뿔뿔히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산림행정평가는 산림정책,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3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하여 각 시군의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해 평가했다.

청송군은 산림분야 업무확대 및 인력증원과 산림예산 전년대비 증가, 임도보수 등 균특예산,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청송임산물대학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교육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 등의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재해 위험목 제거, 산물 방지 주민홍보 강화로 산림보호는 물론 군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산림을 더욱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최초 웹툰'오! 룩주', 84만 뷰 기록하다

카오페이지 연재 일주일 만에 구독 횟수 84만 뷰 기록



구미시에서 최초로 제작한 웹툰 '오! 룩주'가 카카오페이지 구독 횟수 84만 뷰를 기록하며, 경북 도내 브랜드 웹툰 중 최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연재된 '오! 룩주'는 구미시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지역 홍보 웹툰으로, 실존 인물인 구미 출신 명창 박록주 선생과 100년 전 구미로 타임슬립한 해원의 이야기로, 박록주 선생과 동편제를 홍보하며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웹툰을 본 구독자들은 리뷰를 통해 "지역홍보 웹툰인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구미 도리사와 금오산을 방문하고 싶다", "분량이 짧아서 너무 아쉽다"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웹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 재미와 홍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특히, '오! 룩주'의 주요 흥행 요소는 판소리라는 소재의 독특함, 예쁜 작화,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구미 홍보 요소인 도리사, 금오산, 베이커미를 웹툰 사이사이에 노출해 웹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고, 웹툰 마지막에 박록주 선생과 지역 홍보 요소들을 소개해 구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역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몫했다.

웹툰 홍보를 위해 제작된 이모티콘 '룩주티콘' 16종은 배부 10분 만에 25,000건이 소진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 구미시청 채널 친구 추가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구미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가 가진 특색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이 웹툰의 시각적인 볼거리, 재미와 결합해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제작·확산함에 따라 단시간 내 전국적인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개성 있는 지역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19일 경주 양남면 나산리,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열고 본격 공사 시작



경상북도는 12월 19일 14시 경주 양남면 나산리에 위치한 현장 부지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 김석기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 경과보고, 축사, 유공자 포상, 착공 선언식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경주분원으로, 총사업비 723억원(국비 217, 지방비 72, 민자 434)이 투입되며 부지 면적 29,487㎡, 건축 연면적 8,724㎡(3개동) 규모다.

주요 시설은 사무·연구동, Mock-up(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실증하는 곳), 실증분석동 3개 동이 동시에 착공되어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며, 2026년 12월까지 장비구축 및 인허가를 완료해 전체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7년 6월 원전해체 연구소 동남권 설립 방침의 정부 발표 이후 2019년 4월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MOU를 체결했다.

2022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 장비구축 R&D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3년 2월 중수로해체기술원 부지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최충선정했다.

윤근수/기자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세계 최초 중수로 원전 해체 사례가 될 경주 월성 1호기의 안정적인 해체를 이루고, 글로벌 해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라벨은 대구로! '2023년 대구 일·생활 균형 실천 포럼' 열려

대구 가족친화 인증기업 207개사, 상생협력 네트워크 협약, 성과 공유 등



'2023년 대구 일·생활 균형 실천 포럼'이 12월 19일 오후 3시 30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고,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주관으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 한 해 대구광역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위라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노·사·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향후 위라벨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에서는 ▲지역 위라벨 환경 조성 공로 포상 ▲기업 상생협력 네트워크 협약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판증정식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사업 성과공유 ▲위라벨 문화공연 등이 펼쳐졌다.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 자녀 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대구광역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기업컨설팅, 직장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2014년 19개 기업에서 2023년 현재 207개가 됐다.

기업은 인증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위라벨을 보장해야 한다.

대구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90%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 80%보다 높은 것으로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지원이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미인증기업에 비해 이직 감소, 장기근속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대구일생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친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어려워진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간 상호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지역 42개사가 참여해 230개사 이상의 기업에 의료, 여행, 숙박, 카페, 문화서비스, 생생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신규기업 11개사가 대구광역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협약식을 가졌다.

김진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지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위라벨 경영'이 쉽지 않으나 저출생 해소와 청년인재 확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지역 현안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위라벨 문화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위라벨 도시 대구'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회 개최

올해 성과 공유 및 민관협력 우수 협의체 유공자 표창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 15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 등 1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복지 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해중 민간위원장)가 영덕군수 표창을, 김경동(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영덕군의회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강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분과가 민관협력 으뜸상, 병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애인분과가

버금상, 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합상을 받았으며, 최말선(달산면), 신무기(지포면), 김영순(영해면), 장숙희(창수면), 정다경(여성·보육분과), 박재영(아동·청소년분과), 민은경(통합사례관리분과), 이형숙(고용·자활분과) 위원에게 개인 유공자 포상이 주어졌다.

이밖에,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자원 연계를 위해 노력해 온 김호준(이마트 영덕공원점) 대표가 영덕군기초푸드뱅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협의체는 표창과 포상 이후 올해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7

개 실무분과,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 신년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기초푸드뱅크 등 협의체가 활동해 온 영상을 엮어 상영했다.

김광열 공공위원장은 "민관협력의 최일선에서 복지사각지대 연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각 분과, 대표협의체 위원분들의 노력으로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격려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건설하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한결같은 신념과 헌신으로 영덕군민의 동반자이자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문화/기자

포항 과메기 해외에서도 인기! 일본·미국 교류 도시서 시식회 열려

피츠버그시와 후쿠야마시 현지인 대상으로 과메기 시식회 개최

포항시는 미국 교류 도시인 피츠버그시와 일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에서 '포항 구룡포 과메기 시식회' 행사를 개최하며 포항의 대표 겨울 먹거리인 과메기를 홍보했다.

시는 지난 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광역인민회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선보여 참석한 한인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미란 피츠버그광역인민회 회장은 "겨울철 별미로 유명한 구룡포 과메기를 송년 행사에서 맛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과메기를 미국 한인 마트에서 구할 수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시식회에서 과메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포항 출신 회원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글 교실 한 수강생은 "생각보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라며, "야채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식회를 준비한 정유하 씨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어 있어 한국 먹거리에 관심이 큰 만큼 많은 동료와 시민들이 시식회에 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의 대표 먹거리와 다양한 매력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포항시 컨벤션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한인회의 도움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와 교류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해였고, 일본 후쿠야마시는 포항시와 교류하고 있는 해외 도시 중 가장 오래된 형태 같은 도시"라며, "두 도시에서 과메기 시식회를 통해 더욱 우정을 쌓는 기회를 가져 좋았고,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충청북도-빈곤통형 K-유학생 사업 본격 추진키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빈곤통형을 방문한 김영환 지사가 19일 레 주이 타잉 빈곤통성장과 충청북도 역점 추진사업인 충북형 K-유학생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K-유학생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빈곤통성은 충청북도와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하노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조기업들의 입지 수요가 높아 베트남에서 빠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 발전에서 우수 인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찌감치 K-유학생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바 있다.

지난 10월 충청북도-빈곤통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빈곤통성 대표단이 충북을 찾았을 때 레 주이 타잉 성장은 "빈곤통성의 지난 20년간 발전에 한국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일정 인원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양 지방정부간 협약과 함께 도내 대학인 청주대와 빈곤통성 경제기술



대외도 충북형 K-유학생 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2 공동학위제 등 다양한 유학 형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빈곤통성과의 협약체결은 해외 자매결연지역과의 협업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유학생의 선발 과정에 현지 지방 정부가 관여하여 우수한 인재의 선

발과 유학 프로그램에 신속히 합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유학생 개인과 계약을 통해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동 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한 K-유학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빈곤통성과 협업체계를 통해 해외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한 충북

형 K-유학생 사업 본격 추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유학생 선발 등과 관련하여 빈곤통성과 실무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협약체결에 앞서 김 지사는 빈곤통성에 진출한 파워로직스를 포함한 주요 국내기업 20개 사를 초청하여 충북형 K-유학생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K-유학생 사업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동 사업 추진으로 빈곤통성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현지 진출 국내기업에도 혜택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정호 한국기업인협회장은 "충청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빈곤통성에 입지하여 보이지 않게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왔다"며 "충청북도의 K-유학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빈곤통성 진출 한국기업도 성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선 하노이 응웬짜이대 루안충장에 대한 명예대사 위촉과 충북도와 응웬짜이대, 서원대와 응웬짜이대간 K-유학생 관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데이터경제인 혁신 성장을 응원합니다"

제1회 데이터경제인 송년 심포지엄에서 유공자 표창 및 기업인 격려

대전시는 19일 지역 데이터 기업과 함께하는 '제1회 데이터경제인 송년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2년 8월 설립된 (사)한국데이터기술진흥협회 61개 회원사와 관내 데이터 기업인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이 보유한 주요 사업화 기술 교류 및 데이터 혁신 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 강연과 기업 홍보부스 등이 마련됐다.

기초강연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종우 센터장의 "안전한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라는 주제와 함께 건양대학교 김종업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발전 방향"을 강연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기업 홍보부스에는 ▲(주)자란지교데이터 ▲(주)로다아이티 ▲(주)아누타 ▲(주)레드릿 ▲(주)미성

정보기술 등이 참여하여 기업이 자체 생산한 솔루션, 플랫폼 소개 등 협력 기업사 간의 활발한 교류의 기회가 이어졌다.

데이터산업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주)지란지교데이터 조원희 대표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애 팀장 ▲(주)미성정보기술 기업이 표창을 받았다.

대전시는 앞으로 데이터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오늘의 행사가 데이터로 긴밀히 소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오늘 참석하신 기업들이 미래 변화를 함께 주도 해가는 모범적인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합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원 '경남 최다' 지급 완료

합천군은 농업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 원을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지급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소득검증 등을 통해 지난 9월 30일까지 자격유지를 한 합천군 최종 지급 대상은 11,262명,

8,277ha, 18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웅/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옥계·북평지구, 기업유치 본격화로 성과 가시화

12월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분양개시, 분양가 평당 499,094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위치한 383,029.2㎡ 부지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이 완료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8필지, 133,631.8㎡이며 분

양 가격은 ㎡당 150,976원(평당 499,094원)이다.

옥계지구는 급변하는 산업 여건에 발맞춰 유치 업종을 확대하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옥계IC, 7번 국도, 영동선 철도, 옥계항 등 편리한 SOC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인근의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등 북평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해시 구호동에 위치한 북평지구는 147,324.6㎡(4.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로서 수소기업 유치를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평지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만 3천여명 규모의 장기임대단

지를 조성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소기업 7개 업체를 포함, 총 8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계획은 총 236억 원으로 126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주)을 주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저장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북평지구수소 연관기업 추가 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영섭 청장은 "옥계지구와 북평지구가 침체된 강원 영동권역의 지역 경제를 견인,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지구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해양수산부,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만나다

12. 20.(수) '오션테크코리아 2023' 개막, 해양수산 분야 혁신기술 및 기술동향 소개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상'에 대한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블루 푸드테크, 오션 모빌리티, 블루 이코노

미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혁신기업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창업기업인 이피셔리(E-fishery)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들의 혁신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전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해양수산 기술이 더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충남도민 참여 숲 누적 기부금 20억 돌파

도·호반그룹, 19일 업무협약 체결...탄소중립 실천 등 협력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을 지역 대표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가운데, 홍예공원 내 도민 참여 숲 조성에 민간기업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및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같은 날 헌수금 기부에 참여한 130여 명의 기업·단체 등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등 추진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 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홍보 △각 기관 관계망 상호 공유 등이다.

도는 앞으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호반그룹과 협의해 결정·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 지사와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부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헌수금 기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기업·단체의 헌수액은 총 7억 1000만 원으로, 누적 기부액 20억 8300만 원을 기록해도는 지난 6월 1일 첫 기부 전달식부터 현재까지 모두 6개월 만에 2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제5차 전달식에선 △엔에이치(NH)



농협은행 충남본부가 1억 원(이상), △인셀컴 에스지엠(SGM)그룹(김기춘 수석대표, 최백건 대표)이 5000만 원, △일일전기(황수 대표)가 3000만 원, △대륙종합건설(이정재 대표)과 △파인스톤 컨트리클럽(박광태 사장)이 각각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농산개발(김정환 대표) △농협 홍성군지부(한만철 지부장) △두현 E&C(김규열 대표) △로지시스템(윤선옥 대표) △벽산(김성식 대표) △보령오석개발·제일석산(이홍준 대표) △삼우(이준우 대표)·태우건설(김완태 대표) △상흥육육팔팔(박성진 대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윤관원 대표) △지에스(GS)에너지(허용수 대표) △지오기술(이유재 대표) △충남 기업인 단체장협의회(12개 기업) △충남도민회 중앙회(이명범 회장)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오신지우' 모임(류재영 회

장) △충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운상 이사장) △한라엔컴(박종식 대표)이 1000만 원씩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기부했다.

△가온조경(변승희 대표) △금산(윤석권 대표) △내포수출포장(주정현 대표) △농업회사법인 삼화원중(김동진 대표) △대웅건설(강경수 현장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대회(이태양 회장) △디자인창조(주희정 대표) △스텍스(장경진 대표) △아이앤지 산업(허성준 대표) △에스지(SG)글로벌(이이범 대표) △에스피네이저(이병훈 대표) △영농조합법인 산들푸드(양민석 대표) △은성전장(정호용 대표) △이에스테크(황병선 대표) △인천금속(이윤호 대표)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이시하 대표) △주식회사 제이앤지(박중우 대표)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김상현 회장)

△충청남도4·H연합회(김동완 회장) △케이피(KP)코퍼레이션(김문수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송태성 회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 △혜전대(이혜수 총장)가 각각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홍선기 이사장) 300만 원, △청흥태양광(정구민 대표) △충남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전영수 이사장) △충남테크노파크(서규석 원장) △산림기술사사무소예코(허원우 대표)가 각 200만 원, △연암대(육근열 총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조인규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충남연합회(박종민 회장) △효성디지털기획(이영민 대표)이 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도는 내년 연말까지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헌수금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며, 모금액은 홍예공원 정비 사업과 연계해 수목 1000그루 이상 식재, 조경시설·편의시설·조형물 설치 등 주제(테마)가 있는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호반그룹과 충남이 동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호반과 충남의 인연이 도민 참여 숲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분야로 더 확대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이 5번째 모금인데 누적 모금액이 벌써 20억 원을 돌파했다"라며 충남을 향한 애정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에 참여한 기업·단체·개인에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충남의 세한삼우(歲寒三友)가 돼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제약기업 (주)비알팜과 MOU 체결

2025년까지 공장 신설, 288억 원 투자·50명 신규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제약기업인 (주)비알팜과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홍규 강릉시장과 각 지역별 투자기업 대표 및 임원 관계자(춘천 (주)에이엔티파마, 원주 (주)비알팜, 강릉 (주)미코세라믹스) 등이 참석했다.

(주)비알팜은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에 본사를 두고 전문치료 의약품과 에스테틱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제약 전문기업으로 2014년 인천에서 원주로 본사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규 생산라인 확충 등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

특히, 바다 송어의 정소에서 추출하는 DNA조각(PDRN, PN)을 고순도로 확보하는 원천기술과 제형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평이 나 있으며, 전남 고흥의 원료사업장을 자체 운영하여 높은 품질의 국내산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판로 확대 등 사업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주)비알팜은 기업도시 내 신규 확보 부지에 건축 및 설비 등 총 288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의 인원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2025년 4월까지 3천 평 규모의 공장 시설을 신설한다.

원주시는 이번 기업 투자가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원·부자재 및 협력업체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의료기기 특화도시인 원주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관내 기업이 원주를 기반으로 해서 점차 내실 있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이번 투자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중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심사해야"

아산시, 국회 소통관서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박경귀 아산시장, 이명수(아산갑, 국민의힘)·강훈식(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조속하고 완전한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단순한 공공병원이 아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나도 교민을 따뜻하게 품었던 아산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자 국민 화합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 경찰병원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협조해 경찰병원 건축사업의 사전절차 단축 이행의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지역 공공 의료에 대한 무관심이자, 현재 국민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구급차 뺑뺑이 사고 대응'과 같은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병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아산이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의 모범사례이자 혹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의 거점 대응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찰복지법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이 이어 단상에 오른 홍성학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사안이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38만 아산시민과 함께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타 면제로 진행된 대전, 서부산, 진주의료원, 가덕도 신공항, 수도권 용인국가산단 사업을 열거하며 "아산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타 면제에 부적합하고, 위 사업들은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학 회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충남도 등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필요성을 진지하게 대주시길 바란다"면서 "경찰병원 내린 건립 예타 면제를 위해 38만 아산시민과 10만 범추협 회원 모두는 계속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병원 이만희 의원(국민의 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내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청절 간사 등을 만나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천안 실현' 정책비전 제시

천안시는 19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천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차명국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한 천안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 기후위기 적응 실천과제를 추진할 15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제3차 천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시민 대상 기후위기 정책선호도

조사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부문별 이행과제를 발굴하며 적응대책을 보완해 왔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비전을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천안 실현'으로 정하고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전 시민이 공감하는 기후복지 사회 구현을 계획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 ▲농축산 ▲건강 ▲대응 기반 등 총 6개 부문에서 3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이행과제로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스마트팜 확대 보급, 월동 모기 및 유충 서식지 집중 방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차명국 농업환경국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보완·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태백시-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태백요양병원 개설은 민선8기 태백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지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노령인구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다각적으로 상호협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다.

이번 협약으로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보건 증진사업,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협력하게 된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태백병원 내 55병상 규모로 내달 1월에 개원하게 되며, 장기치료가 필요한 진폐, 고령·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필수 의료가 강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요양병원 개원으로 시민들께서 지역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태백요양병원의 병상 규모와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하여 시민이 더 많은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매출 오르고", "20% 저렴"...추운겨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키즈카페 놀러오세요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적자로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된 이후에는 상품권을 미리 구매해서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 당분간 큰 걱정 없이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사장님 A씨

평소 자주 다니던 키즈카페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친정 근처에도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서 친정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합니다. '동대문구 거주 양육자 B씨'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 전용 상품권인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출시한 가운데, 참여 사업주 95.2%는 "매출 증가 등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어려움을 상쇄하고, 사업주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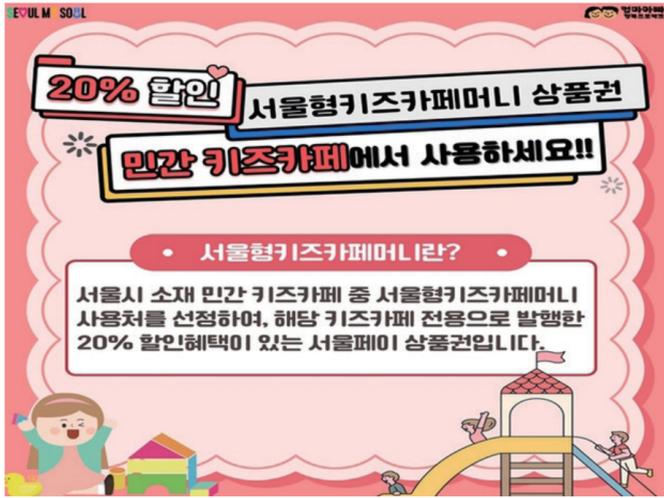
'서울형키즈카페머니' 발행 3개월...사업주 95.2% "매출 등 운영에 도움"

양육자와 아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9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전국 최초로 발행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시는 민간 키즈카페를 모집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18개 자치구 26개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된 키즈카페 사업주들에게 지난 3개월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이 매출증대 등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95.2%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이 중 61.9%는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 사유로는 신규 이용객 유입 증가(47.2%),



기존 이용객 이용시간 또는 식음료 구입 증가(33.3%), 위생·청결·안전 등 인지도 제고(5.6%) 순이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는 서울형키즈

카페머니 사용처로 지정된 총 26개 민간 키즈카페 중 21개소가 참여했다. 이 중 20개 업체가 '아주 만족한다'(13개소), '만족한다'(7개소)라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 지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0.5%로 나타났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이용자가 30~50%가 된다는 곳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사용처 종료기간인 내년 9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0%가 참여하겠다는 응답에 참여 사업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발행 후, 상품권과 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된 민간 키즈카페에 대해 서울페이플러스 앱과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해 꾸준히 안내 및 홍보 해오고 있다. 또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1달간 온라인 유명 맘카페 및 육아커뮤니티를 통해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캠페인을 추진했다.

해당 키즈카페에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도어스티커 및 서울형 인증스티커(1)가 부착돼 있어 방문자들은 상품권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바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 21억2,500만 원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발행했다.

발행된 상품권은 1인당 구매한도가 20만원, 보유한도는 50만원이며 사용하기는 구매일로부터 2년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과의 상생이라는 당초 발행 취지에 맞게 서울형키즈카페머니가 발행 3개월 만에 매출 증대 등 키즈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사업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기 힘든 추운 겨울, 20% 할인되는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따뜻한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명소방서, 겨울철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합동점검 실시

광명시, 전기협회기술자 함께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 실시해..



광명소방서는 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광명시, 전기협회기술자와 함께 관내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광명시 주관하에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광명소방서, 전기협회 기술자와 함께 20명 5개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광명소방서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화재안전인테리어 사업의 일환인 화재안전용품 3중세트(보이는 화재경보기, 소화기, 화재안전콘센트)를 배부하며, 화재위험 3대 전기 난방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사용 안내 및 담배꽂초, 음식물조리,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 및 안내·홍보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평재 서장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 개개인의 주의와 사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화염이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방 및 기초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겨울철뿐만 아니라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교육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경북 울진해역 자망어선 침수 발생, 경비함정 출동, 승선원 전원 구조

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경북 울진군 사동항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침수 어선 A호(5.54톤, 자망) 승선원 3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후 3시 34분경 울진군 사동항 동방 16해리 해상에서 자망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울진어선안전조업국 경유 울진해경서 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이에 울진해경은 선장에게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경비함정 3척 및 구조대 등 세력을 급파했으며, 선장과 통신기

울진해경, 울진군 사동항 동방 16해리 해상 침수 어선 승선원 3명 구조



교신을 설정하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울진해경은 A호에 대해 배수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음

수측정 결과 A호 선장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선원 3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침수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승선원 3명은 경비함정에 의해 모두 구조됐고 생명이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으며 "겨울철은 해상 기상 불명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의 개연성이 높기에 해양종사자들은 장비 점검 및 기상정보 파악 등을 통해 해양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미충족·미실시 6개소 대상

동해시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은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동해시,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현장 점검

수용),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2000㎡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관내에는 총 377곳이 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법정 소독 횟수를 미충족하거나 미실시한 6곳으로, 시는 현장 방문으로 휴업 및 폐문 등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소독 횟수, 소독필증 보관,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실시, 법규 미 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5월과 9월에도 미충족·미실시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유선 안내 및 공문 발송으로 소독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소독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위해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과 법



정 소독 횟수를 준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산업안전 경북을 위하여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 ✔ 추락위험 방지
- ✔ 끼임위험 방지
- ✔ 안전보호구 착용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 철저
- 건설기계 등 설비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철저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철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첫 걸음, 교권 보호

의성교육지원청, 교권 보호 및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자 연수 개최

박명호 교육장, "민주적이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화) 14시부터 의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와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수 시간에서는 2023년 3월 23일 시행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작으로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개정 교권보호 4법'의 법률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을 경상교육

지원청 변호사를 초청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연수에서는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등이 안내되어 달라진 교권 보호 정책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대한 내용도 안내되어 유아교육에서의 교권 보호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수 시간에서는 방학 중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과 교원들이 주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안내되어 긴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전달되었다.

박명호 교육장은 "위축된 교권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첫걸음"이라며 "민주적이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마중물이 되어 준 41개 늘봄학교 한자리에 모이다!

2023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19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41개 늘봄학교와 교육지원청 관리자,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북 늘봄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늘봄학교 정책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 나눔을 통해 내년도 경북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지정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도내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성과보고회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인 개진초(고령)와 포항대흥초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늘봄학교의 비전과 변화의 모색에 관한 기초 강연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 보고

영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내년 경북 늘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충분한 인력과 공간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 한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려 경북 늘봄학교의 마중물이 되어 준 41개 시범운영 학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41개 늘봄학교의 다양한 운영 사례가 일선 학교의 나침반이 되어 경북형 늘봄학교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지금,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야 하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하반기 학교운영위원장 소통의 장 마련

김유희 교육장,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지원과 참여, 그리고 보다 나은 영양교육 실현을 위해 향후, 자주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밝혀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운영위원장·부위원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을 소재 장소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2024년 영양군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소통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장준혁 영양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며 새해에도 영양교육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유희 교육장은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지원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보다 나은 영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자주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활동공유회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성과·의견 공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사업 활동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의 분야별 활동 성과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유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화명초 우쿨렐레 동아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교육공동체 참여 동아리, 재능나눔 학부모 봉사단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가자들은 사업 분야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강준현 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이번 활동공유회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 간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로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으뜸학교 운영 사례집 발간과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

경기도교육청이 제2외국어 주제탐구 프로젝트 우수 사례를 모은 '2023 으뜸학교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고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외국어 으뜸학교는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양한 편성 ▲외국어 교과 융합 프로젝트 운영 ▲학생주도 제2외국어 공감동아리 운영 ▲외국 학교 국제교류 등 의사소통역량 중심의 외국어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도내 제2외국어 으뜸학교에서는 학생이 프로젝트 기획자가 되어 펼치는 주제 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제2외국어 으뜸학교 운영 미래사회 준비하는 학생주도 외국어교육 펼쳐

있다.

돌마고등학교(교장 김성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문화체험 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탐구 활동으로 다양한 일본문화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수업 교류를 진행하는 일본 치구사(고등학교)와 1:1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본 학생들과 언어와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고양국제고등학교(교장 김혜정)에서는 '글로벌 리더십함양 학생주도 프로젝트' 주관을 운영한다. 학교자율과정 일환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교과와 융합해 탐구하고, 인포그래픽, 웹툰, 시뮬레이션 게임, 배리어프리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전시할 예정이다.

수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강길자)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프랑스어 수업과 해당 국가 문화를 안내하며 제2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태성고등학교(교장 강찬식)는 중국어 교과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영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며 한중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미

래인재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미래사회는 의사소통능력과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습자가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1월 희망고 신청을 받아 2024학년도 제2외국어 으뜸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봉화군

세액공제

기부자

답례품

지역생산자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봉 화 군 |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054-679-6542)

몽환적인 크리스마스 속으로...영등포구, 명품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캐럴, 영화 주제곡, 오페라 아리아, 가곡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 구성

영등포구가 22일 저녁 7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온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통 공연의 틀을 벗어나 클래식, 캐럴 멜로디뿐만 아니라 유명 오페라 아리아, 영화 주제곡, 가곡까지 구성해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직장인들의 재능기부 오케스트라인 '영등포구 불꽃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연말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으며, 한 해를 색다르게 마무리할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오프닝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음악(OST)으로 시작하며, 관객들에게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이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는 캐럴 메들리가 펼쳐진다. 귀에 익숙한 클래식과 멜로디도 연주된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게임

참가자의 잠을 깨우는 모닝콜로 등장한 '하이드'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 동화적 상상이 가득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추억에 젖을 수 있는 '나 홀로 집에' 주제곡을 만나 볼 수 있다.

후반부에는 전통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더욱 깊이를 더한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정지용'의 '향수' 등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곡과 유명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겨울이 연상되는 여러 장르의 곡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세계절과 자연을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로 콘서트를 마무리한다.

전 좌석은 무료이며, 구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최초권 영등포구청장은 "올 한 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



려운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공연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

라며, 내년에도 문화도시 영등포에 걸맞게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석관동 주민자치회, 색채 가득 그림 나누며 이웃의 아름다운 인생 응원

석관동 주민자치회의 재능기부로 탄생한 미술작품 13점, 취약계층 13가구에 전달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보건복지분과가 석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해 지난 13일 '아크릴화 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아크릴화 그리기 가업'에서 완성된 아크릴화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 등 이웃에게 석관동 주민자치회 위원 직접 그린 화사한 아크릴화를 기부함으로써 인테리어 전환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선물하고자 한다.

석관동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해 힐링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추천받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시간을 할애해 정성껏 그린 아크릴화를 13가구에 전달했다.

얼룩덜룩 곰팡이 자국과 채광 부족으로 항상 칙칙했던 반지하 가구

에 붉은빛 영롱한 꽃송이 그림이 걸렸고, 허리와 무릎 등 온몸이 쭈서서 외출하기 힘든 홀몸 어르신 가구에는 강렬한 태양 빛을 발산하는 듯한 해바라기 그림이 놓였다.

아크릴화를 받은 한 어르신은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꾸미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석관동 주민자치회에서 준 뜻밖의 선물 덕분에 기분 전환이 됐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석관동 주민자치회 김덕현 회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석관동 주민자치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저염·저당 식습관 교육' 실시

어린이의 저염·저당 식습관을 위한 '당당하(下)게 건강해저염(鹽)' 실시

은평구가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99기관을 대상으로 '당당하(下)게 건강해저염(鹽)'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당하(下)게 건강해저염(鹽)'은 전문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저염·저당에 관한 교육 후 현장에서 급식의 염도를 측정하고,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매월 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어린이

들에게 건강한 저염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한 당 섭취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한 저당 교육도 함께 진행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결과 99기관 어린이 급식소 모두 적정 염도 기준인 어린이집, 유치원 0.4%, 초등학교 이용 시설 0.6% 이하를 준수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영유아기

에 중요한 저염식을 위해 저염·저당 사업에 참여해 저당을 실천하고 염도에 더 신경 쓰며 조리해 아이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완수 센터장은 "올바른 교육과 어린이 급식소의 노력으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초문화원, 일 년을 마무리하는 'Adieu '2023, 송년음악회' 개최



지휘자 서희태의 해설과 함께 대중에게 익숙한 프랑스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오페라 갈라콘서트'

서울 서초구와 서초문화원은 오는 20일 18시 30분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Adieu 2023, 송년음악회'를 연다.

'2023 송년음악회'는 지휘자 서희태의 해설과 함께 대중에게 익숙한 프랑스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준비했다.

공연은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와 국내의 최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박지현 ▲메조소프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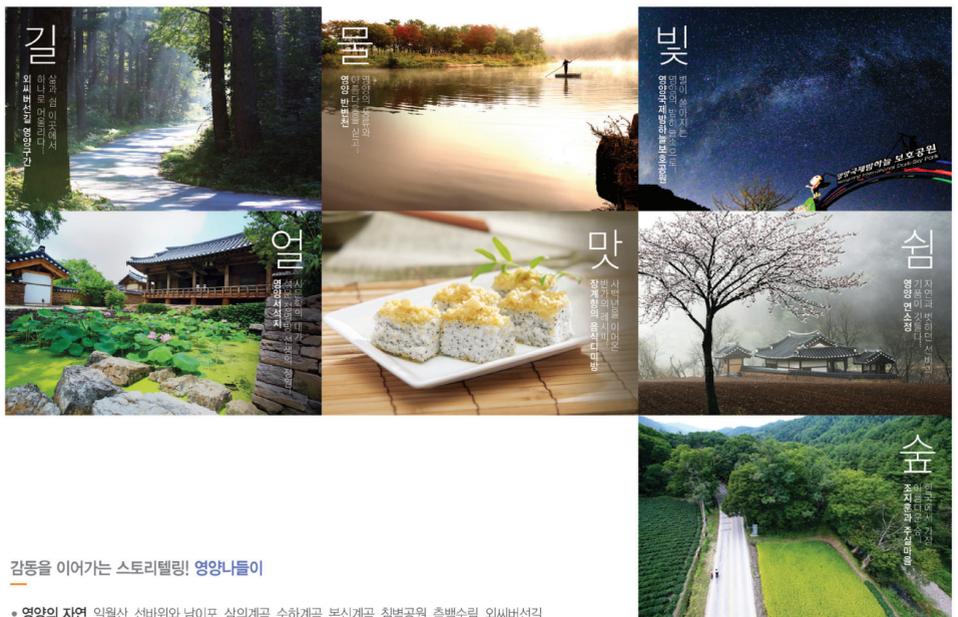
정주연 ▲테너 문세훈 ▲바리톤 김성걸의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꾸밀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Adieu 2023, 송년음악회'를 통해 구민들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성탄절 분위기를 가득한 겨울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죽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보육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명품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관악구, 34년째 온정 기부 한 '사랑의 구두담이'

관악녹지회,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구두담이 행사' 펼쳐며 나눔의 가치 몸소 실현

관악구의 구두수선대 모임 '관악녹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을 전해 화제다.

관악녹지회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구두 수선대 운영자들의 모임으로 1990년도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해마다 '사랑의 구두담이' 행사를 실시, 마련한 수익금을 여러 단체에 기부해왔다.

지난해까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모금액을 기부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올해도 지역 내 구두수선대 운영자들은 '1일 사랑의 구두담이' 행사를 개별적으로 진행, 수선비용 등 수익금 140만

원을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이후 모금액 전액을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관악녹지회 강규홍 회장은 "도움을 받는 삶보다 도움을 주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참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12월 8일 성금 전달식과 더불어 관악녹지회 활동을 성실히 해 온 우수회원

2명에게 모범구민 표창 수여하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관악녹지회 강규홍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깨끗이 닦아진 구두만큼 나눔의 빛을 선사하는 관악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